“풍력발전 설치 반대” VS “소음 문제없어”

온타리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 불사 무산 위기

8000만 달러 규모 불사 위해 20년 간 ‘성지화’ 작업 15개 풍력기 설치로 위태 “먼 거리, 소음 우려 없다” 주장



나다 온타리오 카와사(Kawartha) 호수 근처에 15개의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으로 인근에 설립 예정이던 8천만 달러 규모의 종합 불교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참고 자료. 사진출처=잭리스트닷컴

8000만 달러 규모의 사찰 불사계획이 풍력발전기 설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나다 언론 ‘CBCNEWS’에 따르면 6월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카와사(Kawartha) 호수 근처에 15개의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으로, 인근에 설립예정이던 8000만 달러 규모의 종합 불교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캐나다 토론토서 140㎞ 떨어진 곳으로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에 알맞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불교도들의 세계 성지순례지중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의 불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중국 화교 및 현지 불자들은 이곳에 불교 종합 센터를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 카와사 호수 근처의 땅을 사고 모연하는 등 세계 불교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불교 종합 센터 총괄자 다이앤 첸은 “성지순례는 시간 · 금전 · 육체적인 것을 초월해 도전적인 일이다. 불자들은 이곳이 새로운 성지가 되길 염원한다”며 “불교 종합 센터가 생긴다면 매년 4만 5000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는 만트라(진언)가 울려퍼질 듯 크게 입을 벌린 사자동상 6개가 세워져 있다. 또한 거대한 불두(佛頭)가 수풀 위에 놓여있으며, 12명 인부들이 뙤약볕 아래 무거운 기둥을 옮기며 불사 작업에 한창이다.

또한 불사 지역엔 700헥타르(700만㎡)의 부지위에 전통사찰과 함께 40킬로미터의 명상길도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 세워지는 동상과 기둥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건너 온 것이며 설치하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곳 지역은 불자들 뿐 아니라 풍력발전 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한 풍력회사가 사찰이 들어서는 위치에 15개의 풍력기를 세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풍력기가 들어설 위치가 사원 내부를 관통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첸은 “이곳이 평화로운 순례지가 되길 바란다. 만약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소음 때문에 명상도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비단 사찰 불사 관계자뿐만 아니다. 지역 농부들 또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카와사 레이크시장 앤디 르담은 “(풍력발전기로 인해)사원 성지순례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녹색에너지 산업을 지향하지만, 정부는 이번 풍력발전기 설치를 승인하기 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았어야 한다. 무엇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WPD 캐나다 풍력발전회사는 “풍력발전기는 사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어질 예정이며 소음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WPD캐나다 대변인은 “지형학적으로 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퍼지지 않을 뿐 더러 나무와 동산이 있어 그런 우려는 덜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맥킴은 WPD캐나다의 사업에 찬성, 그의 토지 일부 임대를 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킴은 “의견충돌이 있다면 풍력발전회사 측이 풍력발전기를 다른 곳에 설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오클랜드大, 불교전통 입문 과정 신설

태고종서 승려 수계한 히키 교수 강의 맡아



미국 오클랜드대 가을학기에 신설되는 ‘불교전통 입문’ 강의를 맡은 케빈 히키 교수(사진 맨 오른쪽). 히키 교수는 한국 태고종단서 구족계를 수지한 바 있다. 사진출처=오클랜드대학

미국 오클랜드 대학교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불교전통 심화학습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신설한다. 특히 강의를 맡은 케빈 히키(Kevin Hickey) 교수는 한국 태고종서 승려 수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오클랜드대 교지 6월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대는 2016년 가을학기에 ‘불교 전통 입문’이란 강의를 개설한다. 인도서 비롯된 불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등을 교육하는 이번 강의는 케빈 히키(Kevin Hickey) 교수가 맡았다.

히키 교수는 오클랜드대를 졸업해 한국 태고종서 구족계를 수지, 미주-유럽 교구본사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얄 오크에 위치한 뷰몬 병원서 교화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히키 교수는 “종교의 체계를 탐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용, 용기와 자비심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불교는 특히 무신론적 입장으로,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철학이 있다. 미국 학생들이 불교를 배움으로써 자신들만의 철학 ·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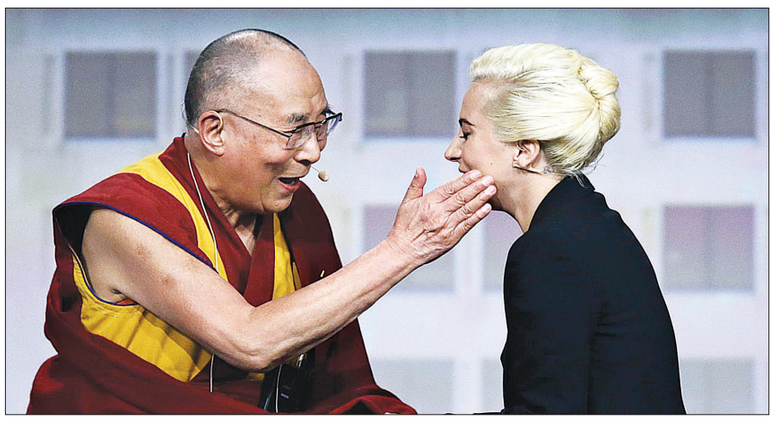
히키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신성한 역사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한 ‘불교는 고루한 종교’란 미국 사회 내 선입견 해소를 위해 실용적인 불교문화와 의식 등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오클랜드대 ‘종교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괄자인 앨런 앱스틴(Alan Epstein) 박사는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서 다른 종교 및 인종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화와 화합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이런 강의를 더 많이 개설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레이디 가가, 中 퇴출 위기 “달라이 라마 만난 죄”

중국 정부, 레이디 가가 노래 및 영상 삭제 조치



6월 26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서 열린 회담에 앞서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의 만남이 성사됐다. 중국은 이에 대해 “레이디 가가를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Quartz

미국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30)와 달라이라마(81) 만남에 중국 정부가 발끈, 중국 내에서 레이디 가가의 음원 및 영상을 모두 제한하고 나섰다.

6월 26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서 열린 회담에 앞서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의 만남이 성사됐다. 약 20분 간 나눈 이들의 대화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달라이라마와 손잡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승복 입은 여우’라 비유하며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는 주로 명상과 정신적 건강, 인간성 회복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지만, 회동 자체만으로 중국 정부와 팬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홍콩 언론 ‘Apple Daily’는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중국 내 모든 웹사이트와 언론기관서 레이디 가가 음원 및 관련 영상 들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태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달라이라마가 해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오직 티베트 독립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빨리 달라이 라마의 본색을 알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까지 나서 “테러리스트(달라이 라마)를 믿는 것은 중국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격노해 레이디 가가의 중국 활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레이디 가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레이디 가가가 이러한 사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것이라 예상했다. 레이디 가가는 이미 6월 23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Sinocism Newsletter’ 운영자 빌 비숍(Bill bishop)은 “레이디 가가는 이미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녀는 다른 연예인과 달리 소신 있게 행동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서 중국은 본 조비, 마룬5, 오아시스 등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거나, 달라이 라마 및 티베트 독립에 대해 호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공연을 금지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애플 워치에 ‘마음챙김수행’ 기능이!

6월 14일 샌프란시스코서 애플워치 최신 버전 공개

애플 워치에 마음챙김(mindfulness) 수행 기능이 추가 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서 개최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WWDC) 개막식서 애플 워치 최신 버전이 공개됐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워치OS3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 명상앱 ‘브리스(Breathe)’가 추가됐다.



사진출처 huffingtonpost.uk

심호흡을 통한 명상법을 알려주는 이번 앱은 디지털 크라운으로 시간을 정해 숨 쉬는 길이에 대한 안내를 햅틱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제이 블라닉 애플 피트니스 헬스 파트 디렉터는 “깊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일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마음챙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꾸준히 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최신 버전엔 SOS 기능도 장착,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911(응급 구조 번호)로 연결된다.

아울러 주요 OS(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각 OS와 앱 또는 기기들을 연동시켜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번 WWDC의 초점이 맞춰졌다.

워치OS3는 올가을 공개될 예정이며, 애플이 공개한 미리보기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의 작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